

# 주부신행담

## 되찾은 올바른 삶 ㉔

**사** 머니즘을 접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오직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녀의 세계에 접어들어 생활하다보니 주위 사람들의 욕심이 말할 수 없이 많고 말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욕심만 부리면서 배울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배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이러 이러 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 비밀이란 오래 가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받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이었겠는가.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도왔다고 나에게 보답했다고 떠들 때마다 내 가슴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길이 아니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 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부처님 말씀으로 알려진 정도의 길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부처님이 그리웠다.

길을 찾아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이 불췌불췌 치밀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억누르고 있었다. 절에 가고 싶은 마음과 가지 못하는 몸, 내 몸과 마음은 하나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번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걸어들었다. 그 절은 법당문이 꼭 닫혀 있었다.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일지

었다. 어느 날인가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싶었다. 왜 유독 <금강경>만을 불 인연이 닿지 않았던지... 처음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눈물이 났다. 너무도 감사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 왜 진작에 몰랐던지. 내가 원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수도승은 아니지만 재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언제나 수행하는 자세로 임하고픈 마음이었다. <금강경>을 읽으며 이제 문득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은 듯 했다. 기쁘기 한량없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을 조용히 받음이 실용이 옮겨 나가도록 해 줄 것이다.



그림 · 이준석

### 무녀의 길 대신 부처님을 찾으니 너무 편안하고 한없이 가벼웠고 '금강경' 속에서 할 일을 깨달았다

않았다.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이 몸으로도 그리웠다. 법당 밖에서 그대로 합장하고 반배를 올리는 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누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어쩔면 그럴까봐 법당엔 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말을 안들었지만 늘 "나는 들어 가고 싶다"라고 마음 속으로 절규를 했기 때문에 보다 못해 이곳까지 끌고 왔나 보다.

그 이후 내 생활을 과감히 바꾸었다. 사마니즘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내 삶의 방식을 개화해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과 더 친숙하게 만나갔다.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던 내 결정에 만족한다. 부처님께 귀의하니 너무 편안하고 한없이 가벼운

**이** 제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조금은 별스러웠던 것 같다. 그 어떤 곳 어떤 열매는 것은 불꽃이 아니라 지 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살고 집착 받 는 것도 없었다. 남녀의 문제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나만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여기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조차 부담스러워 뿐이다. 불행없이 산행도 다녀오고 싶으면 출퇴근 다녀오고 또한 글이 무엇가를 읽고자함도 없었다. 그렇다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너무 저물려서도 안될 것이다. 안에서 얘기했듯이 난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에도 충실하며 "나"를 가꾸어 나가는데도 기

여할 것이다. 한 때는 이러한 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열려도 했지만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난 사마니즘의 세계를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 무속 신앙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안목으로 그들을 보아줄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엇 이든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 '상'에 집착하는 것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다를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을 나쁘게만 볼 게 못된다. 그대들은 일단 마음을 먹으면 흥으로 움직이지만 우리 불자를 대부분은 형보다 믿어 안시키고, 큰스님 법문 한마디 듣는 것이 최고의 공부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좋은 절로 떠나서는 안된다. 법문을 체계시켜 실천에 옮기고, 사회적 회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자라면 반드시 수행만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대저면 수행에서도 얼마든지 부처의 도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귀하여 만나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연이 닿는다면 자연스럽게 만나 지지 않을까? 난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닦은 만큼 얻고 그렇지 못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모두 수용하고 싶다.

흔치 않는 건 가끔은 괴로움 따가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수렁에 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같다. 가끔 자신을 억지 못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언제고 진정 바랄 수 있는 나를 가꾸고 싶다. 현상에서 벗어나 내성에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해탈에 있다면, 진정한 해탈의 경지가 아니라면, 현상의 생각없이 편안한 삶보다는 또다시 인간의 고통이 따르리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변화 속에서 무한히 나란 존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름대로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존경하는 데 진정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이 되었으면... 앞으로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백련화 <인천시 무공수심정2월>

### 두한향으로 인한 고통 현연향으로 싹 해결하십시오

일제항만 꼭 피우시겠습니까?

① 일각문  
마음을 여는 문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마음의 여력을 향기로 열여주는 심연의 향기로써 중풍이나 사린에서 널리 응용되어 온 순수 전통 천연향으로 특히 절향, 울릉도 자단향, 영농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향기가 매우 고귀하고 맑아 마음과 정신 육신을 능히 맑게하고 밖으로는 하늘까지 통하고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향

② 신금난  
백단향 백리향과 금산향만의 특이한 3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이 깃든 배합과 숙성기술로 탄생된 명향으로 일본에서 한중일 무역박람회에서도 우리의 천연향기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일명 피우는 우리의 향수! 피울때는 정신을 맑게하고 그 잔향은 몸에 배어 온온하게 흘러 나와 타인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우리 선조의 이웃사랑정신을 알게 하는 향



최고급 선물세트

일본수출기념 향꽃이 무료증정

◆ 특별보급가격 42,000원

### 한국천연향의 자존심 최우는 우귀의 향수

귀하신분께 귀한 선물을...

③ 백난

옛부터 소향의 가루향으로 많이 쓰이는 향재를 사용한 것으로 목향, 육계, 절향, 난향등을 잘 조화를 이룬 계향기술로 사랑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그 향기가 미묘하고 아름답다워 자연과 하나가 될을 느끼게 하는 향

**錦山香堂**  
천연천연향 고집하며 3대째 이어온 100년 전통의 금산향당

◆보급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8-1번지  
◆일터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이리 48-2번지  
◆http://www.ksbuy.co.kr

**무료전화**  
080-776-7000

##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 판매 : 인허넷 불교 특화점 마이홈 ▶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 반아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아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풀워있는 소장용\*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용\* 반아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아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처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아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예복시, 우레탄등 5종류의 특수재질을 혼합 나뭇결 모양을 100% 살린 목재경판 형태로 만들어져 수십년이 지나도 뒤물리거나 깨지지 않고 가정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경판 표면의 그림과 문자를 특수 등분처리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스탠드형 경판 (고급 오픈나무 케이스 포함)

- 원산지 : 한국
- 규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액자포함 사양)
- 가격 : 107,000원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